한마음선원 도량탑, 통영에 우뚝 서다

통영지원, 10월 30일 대웅전 앞마당서 도량탑 제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높이 9.2m, 폭 4.2m으로 조성
대행 선사 법어로 탑신 장엄해
일주문 및 불이문 현판식 제막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10월 3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도량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도량탑이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 우뚝 섰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이 10월 3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도량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도량탑 제막식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을 비롯해 전국 지원장 스님들과 정점식 국회의원, 강석주 통영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한마음선원 도량탑은 2002년 1월 대행 선사가 "우주대천세계에 불성의 에너지 중심처가 되고,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의 뜻이 담긴 탑을 둥근 공 모양으로 하되, 9층으로 세워 보라" 고 설한 가르침에서 시작됐다.

통영지원에 새로 세워진 도량탑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불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10월에 탑신 건립을 완료했다. 최상급 경주석으로 조성된 통영지원 도량탑의 높이는 9.2m이고 폭은 4.2m이며, "주인공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인공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등 대행선사의 법어로 장엄됐다.

제막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도량탑 제막 △헌화 △내빈소개 △청법가 △입정 △대행선사 영상법문 △봉행사 △격려사 △감사패 △축사 △인사말씀 △축가 △사홍서원으로 진행됐다.

통영지원 사부대중이 제막하자 새로운 도량탑의 모습이 나타났고 사부대중은 박수로 축하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도량탑 건립과 일주문 · 불이문 조성에 공로가 큰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이사와 윤상민 서예가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량탑 조성을 축하하기 위한 내빈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에 앞서 "칠성불은 만 중생의 불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 주시고, 서천국의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들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대행 선사의 법어를 봉독했으며 대중들은 함께 목소리를 높여 따라 외쳤다.

이어 혜수 스님은 "7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도량을 이루기 위해 첫 삽을 뜨던 때가 생각난다. 그동안 전각을 불사하고 오늘은 일주문과 불이문의 문을 열었으며 도량탑 제막을 하게 됐다"며 "이 전처럼 도량을 가득 메우고 모두와 인사를 나누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곳의 기쁨이 모든 대중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사를 했던 17년이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그동안 불사를 하면서 오직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알리는 것에 목적을 뒀다"며 " '서천국의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들을 깨닫게 하소서' 라고 발원하셨던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마다 선사가 이끌어주심을 느꼈다" 고 불사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도를 대표해 김용철 고문은 봉행사에서"하늘을 받치고 땅을 짚고 심주의 주장자로 우뚝 선 이 도량탑은 일체생명들이 한마음을 깨달아 성불하기를 기원하는 대행 선사의 중생구제 원력이 담겨 있다"며 "대행 선사의 뜻과 지혜와 자비심이 이 도량에서 세세생생 이어져 가기를 염원하는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의 서원이 주춧돌이 되고 탑신이 됐다"고 찬탄했다.

이영자 고문은 "대행 선사는 '도량탑은 이승과 저승이 통하는 길이요 삼세가 통하는 길이며 세상만사가 통하는 길' 이라고 하셨다"며 "그 가르침을 오롯이 담아 조성된 도량탑 앞에 서니 더 할 수 없는 감동이 느껴진다"고 감격했다.

이날 통영지원은 도량탑 제막에 앞서 일주문과 불이문 현판 제막도 함께 봉행했다. 일주문과 불이문 현판 불사는 윤상민 서예가가 담당했다. 일주문 현판은 한글과 한자로 구성됐으며, 불이문은 전통서체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통영지원 제막 행사 및 법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및 손소독 등 방역 규칙을 준수했으며 온라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

금산사, 화합과 혁신의 첫 걸음 선포

월주 대종사 입적 100일
문중 운영위원회서 결의
전북불교 발전 기자 간담회
신행단체 중심 백일재 봉행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가 태공당 월주 대종사 입적 100일을 맞아 백재를 봉행하고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사진〉

금산사 태공문도회 운영위원회는 10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중공의 · 화합의 최고가치 선언 △발심에서 열반까지 보장되는 교육 · 수행 · 복지체계 확립 △전북불교 희망비전 수립 △불교와 한국사회 향도, 새 불교운동 전개 △ 변화 혁신 위한 첫걸음 시작의 5개 항을 발표했다.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과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태공문도회는 직계상좌, 손상좌, 불교신행단체, 불교시민단체, 종무원 등 사부대중 의견을 청취했다. 불자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전북불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손상좌를 모신 약사전, 시민선방, 문화교실, 시민단체 사무실로 이용된다. 4층은 주지실과 스님 방사, 손님 방사가 조성됐다.

주지로 내정된 연성 스님은 "30여 년 전 종원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광주포교원 건립이 역대 큰스님들의 염원과 사부대중의 발원으로 이뤄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가 불자와 비불자를 차별하지 않는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화강좌와 수행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운영원칙을 제시했다. 건물의 특징에 대해서 연성 스님은 "전통사찰은 스님을 위한 공간이 주를 이루지만, 빛고을포교원은 불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쉽고 편하게 쉬어가는 공간이자, 지역의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부터 ' 현대건물이지만 전통 느낌이 나야하고, 전통사찰에 익숙한 불자들에게는 이질감이 없이 편안해야 한다' 는 원칙으로 실내공간을 조성했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카페처럼 꾸며진 지하 1층 공양실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커피, 우유, 토스트 등을 제공하고 명상과 기도 등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역점 사업으로 빛고을불교대학(1년과정) 운영, 문화강좌, 수행프로그램(다라니기도, 참선수행), 지역주민을 위한 직장인 명상반 등이 운영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함한 운영위원회 보강 △ '전북불교 백년대계 정책기획단' 출범 및 월주 스님 1주기 맞춰 전북불교 희망비전 청사진 발표 △연간 5억 원의 교구발전 특별기금 조성 등이 제시됐다. 또 △교구 사부대중 만남과 대화를 위한 순례 △탁마의 야단법석 참여 △본사 소임자의 본사 거주 및 화합과 혁신 기운 확산 등이 포함됐다.

도법 스님은 "우리가 대종사께서 하신 일들을 다 받아 안기는 쉽지 않으나, 그 중심에는 전북불교발전이라는 과제가 있다고 보았다"며 "대종사 입적 1주기를 기해 구체화된 계획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원 스님은 "승보공양, 승려복지 등 교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준비 중이다. 앞으로 대종사 뜻을 받들어 전북불교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적광전서 열린 태공당 월주대종사 열반 백재는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봉행됐다.

백재에서 하유호 108순례단장 등은 평소 스님과의 인연과 가르침을 회상하며 스님께서 추진하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등 스님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주 청련사, 겨울 나기 물품 전달

11월 3~4일 연탄 · 김장김치 자비나눔



천년고찰 양주 청련사(주지 상진)가 11월 4일 양주 장흥면 주민들에게 연탄과 김치, 라면, 화장지 등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에는 청련사 주지 상진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과 포교원, 장흥면 새마을부녀회 봉사자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물품을 전달한 곳은 이 모 어르신을 비롯해 장흥면 저소득층 100가정. 연탄을 사용하는 25가구에 각 400장씩 총 1만 장을 지원했고 장흥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100가정에 각각 김장김치 10kg과 휴지, 라면을 전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 상당이다.

특히 김장김치는 하루전날인 3일, 청련사 포교원과 신도회 등이 1100kg 규모로 직접 담가 포장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주지 상진 스님은 지속적으로 지역 내 소외이웃을 살필 것을 약속했다. 상진 스님은 "지역 이웃과 함께하라는 청련사 前 주지 백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 힘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임은호 기자

구례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개원

지리산 화엄사 도심포교 첫 시동


11월 20일 광주 하남동에 개원 예정인 화엄사 빛고을 포교원.

지리산 화엄사의 도심 포교 염원을 담은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이 오는 11월 20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개원한다.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은 11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설 내부 공개와 함께 향후 운영방안을 밝혔다. 지난 2년 여 간의 공사를 통해 이날 공개된 빛고을포교원은 도심 속 현대적 건물과 전통을 살린 실내공간이 눈에 띈다.

먼저 지하 147평 공간에는 카페처럼 차를 마실 수 있는 공양실과, 대청마루, 잘 꾸며진 화계마당이 눈에 들어온다. 1층은 종무소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신도들의 주 사용공간인 2층(117평)에는 삼존불과 삼천불을 모신 대웅전, 삼성각, 신도회 사무실 등이 마련됐다.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3층(123평)은 약사여래

양향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야불교 연구 위한 '가야승가포럼' 발족

10월 29일 불인사, 매월 1회 정기포럼 개최



경남 김해시에서 가야불교와 김해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온 스님들이 불교의 현대적 방향과 지역 사회 활동을 고찰하기 위한 '가야승가포럼' 을 결성했다.〈사진〉

가야승가포럼은 10월 29일 김해 불인사에서 창단 발족을 알리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청소년 행복' 을 주제로 첫 강연을 개최했다.

강연은 박용하 부산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이 담당했으며 청소년의 복지 및 부산불교계의 활동 사례 등을 소개했다. 강연에 앞서 가야승가포럼은 언론사 경남매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자비의 쌀 10kg 500포를 소외 이웃에게 회향했다.

바라밀선원 주지 인해 스님(통도사 강주)은 "3개월 전부터 여러 스님들이 뜻을 모아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그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운영에 대해 토의하고 모색했다. 앞으로 가야승가포럼은 가야불교와 김해불교 중흥이라는 목표를 갖고 김해 발전과 사회 통합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가야승가포럼은 앞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종교의 기능을 연구하며 사회 활동 방향을 고찰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녕 청련사, 중창 불사 회향법회

10월 31일, 법회 및 산사음악회



통도사 말사 창녕 청련사(주지 무영)가 14년 동안 이어온 중창불사를 회향하고 지역 포교의 거점이 될 것을 천명했다.

청련사는 10월 31일 경내 극락전 앞에서 중창 대작불사 회향 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청련사는 잦은 수해 피해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진입도로부터 대웅전, 요사채, 극락전, 종무소 등 전각 일대를 재건축 및 보수했다.

청련사 중창불사는 2007년 진입도로 정비 및 극락교 설치 등 주변 수해 지역을 복구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선조계종 창종 8주년 기념법회

10월 31일 3대 종정 이 · 취임식도 봉행



(사)한국선조계종이 총본산 총무원 대구 성불사에서 10월 31일 창종 8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3대 종정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한국선조계종 3대 종정에 취임한 혜원 스님은 "선조계종 창종 8주년 기념일을 맞아 사부대중은 불교중흥을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변함없이 정진해 나아가자"며 "부처님을 섬기는 한마음으로 불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선조계종은 2013년 10월 31일 발기인 11명으로 창종됐다. 현재 53개 사찰이 소속된 종단으로 참선수행과 법음범패 교육에 앞서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천 거조사, '나한대재' 봉행



영천 거조사(주지 태관)는 10월 30일 영산전에서 제17회 나한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석에는 은해사 교구장 권한대행 혜안 스님과 거조사 주지 태관 스님, 경산 경흥사 주지 도오 스님과 김칠권 거조사 신도회장 등이 동참해 국난극복과 국태민안을 발원했다.

행사는 원명 스님 집전으로 신중작법과 부처님 전에 올리는 상단권공, 법문, 축하무대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또 아라무용단의 바라춤과 살풀이, 관음무 등이 이어졌다.

거조사 주지 태관 스님은 "나한대재에 동참한 사부대중이 오늘의 어려운 한철을 잘 견디어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 거조사는 영산전(국보 14호)이 있는 국보사찰로 526나한성중이 봉안돼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